

## XII.a 국내 교통행태

해외여행을 제외하고 2009년 현재 평균 1인당 이동거리는 약 3,000km이다. 이 중 약 45%는 자동차(승용차, 승합차, 오토바이 포함)가 차지하고, 버스가 약 27%, 철도가 약 21%, 항공이 1.9%, 도보가 4.9%, 자전거가 0.5%씩 차지한다.

자료는 국토해양통계연보와 2009년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구조(교통DB센터) 등을 반영하여 작성했다.

### Level 1

2050년까지 1인당 이동거리가 2009년보다 60%가 증가하고, 교통수단별 비중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.

### Level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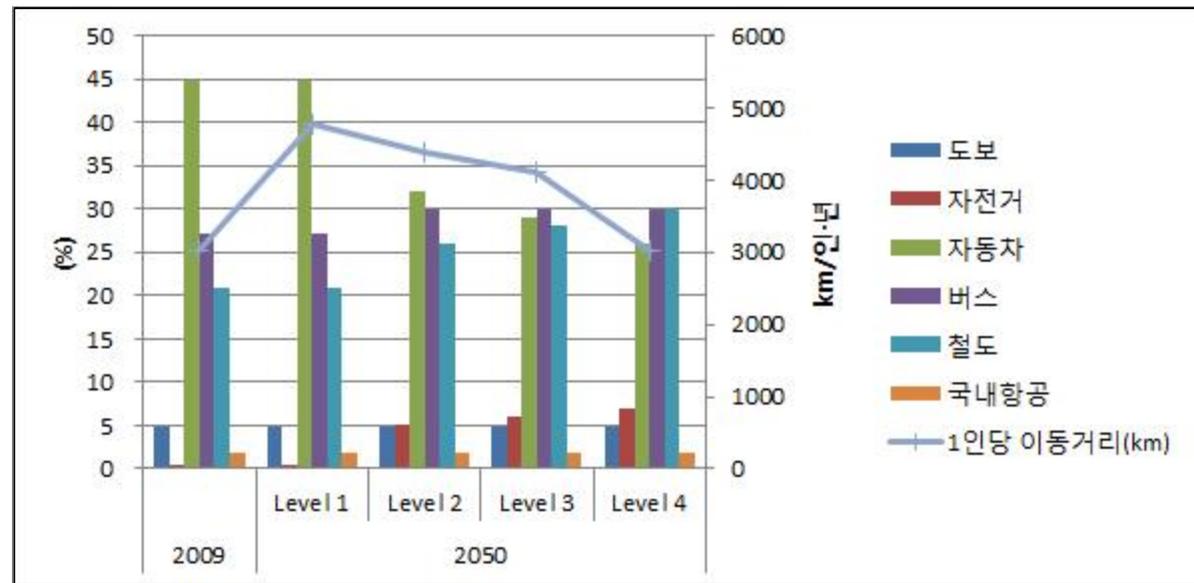
2050년까지 1인당 이동거리가 2009년보다 46%가 증가하고, 자전거, 자동차, 버스, 철도에서 변화가 있다고 가정한다. 자동차가 32%, 버스 30%, 철도 26%, 자전거는 5%.

### Level 3

2050년까지 1인당 이동거리가 2009년보다 37%가 증가하고, 자전거, 자동차, 철도에서 변화가 있다고 가정한다. 자동차가 29%, 버스 30%, 철도 28%, 자전거는 6%.

### Level 4

2050년까지 1인당 이동거리가 2009년과 동일하고, 2009년과 비교해서 도로수송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, 철도수송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다고 가정한다. 자동차가 26%, 버스 30%, 철도 30%, 자전거는 7%.



<그림> Level에 따른 1인당 이동거리 및 수송수단별 점유율